



“찾아가는 의료봉사 지속 추진” 경북도는 영양군과 함께 지역 우수 대학병원들과 지방의료원, 도 의사회 등 15개 기관 25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5일 영양군민회관에서 '별빛고를 영양에서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하는 중에도, 경북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아, 도와 영양군, 지역 우수 대학병원들과 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이 출동했다.

“APEC 성공... 道 재도약 초석 될 것”

준비 지원단장 최근 과정 설명
실·국별 협조 필요 사항 전달해
문화 APEC 추진 방안 등 보고
道, 1조원 가량 경제 효과 전망

경북도가 5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경주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행사 준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 지원단장은

지난 6월 APEC 유치 확정 이후 조례제정, 준비단 구성, 핵심 5대 과제 선정, 중앙부처 점검 등 지난 4개월간의 행사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국비 확보와 동시에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게 예비비를 투입해 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개최지인 페루 리마의 기반 시설, 문화 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경주시와 혼연일체로 행사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수준의 정상회의 기반 구축’, ‘세일즈 경북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경제 APEC’, ‘K-한류의 원천 경주와 경북 5한(韓)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APEC’ 등의 추진 방안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행정부지사서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조직 구축,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 투자통상박람회 및 K-한류 박람회 개최 지원, 재난취약 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응급의료대책 수립 및 응급의료팀 운영 등 실·국별 협조 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역대 가장 성

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전 부서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APEC 유치는 경주가 가진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쾌거인 만큼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자기 일이라는 마음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APEC 성공은 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조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역대 가장 성공

한 행사를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2025년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10월 말~11월 초에 열린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개최로 국가적으로는 1조9000억원, 경북도는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6일 오후 1시 일원에서 열리는 청동면 화합간기대회 및 산불예배 캠페인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6일 오후 1시 감포일원에서 감포항 개항 100주년 부지 현장 시찰에 나선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골독자들 결으로 !

도의회 정례회, 관련기관 행정 점검

도의회 정례회, 관련기관 행정 점검
현장 방문·사업추진 분석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20일까지 제3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오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규탁(비례), 최태림(의성), 황재철(영덕)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 승마장 등 운영, 경북도문화관광공사 경영 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 등에 대해 질의한다.

최태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농어촌 지역 출산환경 개선, 경북도 국립립대 신설, 늘봄학교 등에 대해 밝힌다.

황재철 의원은 경북도의 외국인 유입 정책과 경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 특화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다.

영천시, 복숭아 스마트팜 조성

경북 영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숭아 노지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공모에 과수 품목이 선정돼 국비 등 32억원을 확보했다.

복숭아 주산지인 금호읍과 대장면, 임고면, 청동면 일대에 향후 2년간 총사업비 40억원(자부담 20%)을 들여 노지 스마트 기술 통합 모델을 구축한다.

자율주행 제조 로봇, GPS 활용 무인방제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분석한다.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후 박용순(포항), 서석영(포항), 남영숙(상주) 의원의 도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2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을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성만 경북도 의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도시철도 4호선... ‘車형식’ 두고 ‘갑론을박’

대구시 “실현 불가능한 주장... 사업 지연 않기 당부”
대구안철련 “인구감소·노선 확장 한계... 전면 재검토”

대구시가 총사업비 7805억원을 들여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인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철재차량 AGT(자동 안내 차량) 차량 형식을 두고 시민단체와 벌이고 있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구시의 4호선 추진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AGT 방식이 기존의 3호선과 호환성이 없고, 도심 도로 한 가운데 8m가 넘는 상판 덮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을 중단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4호선을 전면 백지화 검토 등 대중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AGT 차량시스템은 전제품 국산화로 장래 확장성과 유지·관리비가 모노레일 대비 절반에 불과한 확실한 장점이 있다”며 “대안이 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4호선이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로 인해 도심 경관 훼손됐다고 한 지적에 대해 “서울, 부산, 인천에서 운용 중인 AGT 구조물(약 8m) 보다 폭이 좁은 7.69m의 슬림한 상판을 적용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구안철련은 5일 설명을 통해 대구시의 설명을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고가도로와 닮은 교각 구조물 상판 폭이 8m에서 7.69m로 0.31m 줄었다고 별 차이가 없다”고 따졌다.

또한 “철재 AGT방식인 인천2호선과 고무 AGT방식인 부산 4호선의 경우는 외관

일부 구간만 지상 구간이고 도심지는 모두 지하 구간이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철련은 대구시가 해명자료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지난해 진행된 주민설명회(3회)와 공청회(1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시 참석한 전문가 모두 AGT 차량방식을 반대했는데 무슨 근거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는가”라며 “대구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철도 노선 확장 한계상황이다. 4호선 백지화 등 대중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대구시-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4호선 차량 방식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한다

125개교 대상 학교 내역 결정
올해까지 불법 사례 신고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125개교(원)에 15억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3개의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5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25개교 대상 학교와 학교별 지원 내역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별 필요한 국·공·민·협·기·기타 등 급식기구 교체(확충)와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조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등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번 지원 예산의 집행이 집중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에는 급식기구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납품 전 과정에서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불법 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대구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이 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2

진보 대구수성지사 주임, 전국장애인체전 3관왕

지난 10월 30일 폐막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유서빈 주임이 수영부분 동매달 3관왕을 달성했다.

유서빈 주임은 2015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수영 자유형 50m S2와 배영 50m S2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인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하여 현재는 대구수성지사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다.

넘치는 패기와 열정으로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틈틈이 노력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 유망 '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업 지원

산업 선도 유망기업 13개 발굴 올해 10개 기업 심사 통해 선정 대구시, 전 주기 걸친 맞춤형 지원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업 13개를 발굴·지원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2024년 ABB 분야 유망벤처 기업 6개와 고성장기업 4개를 선정하고, 5일 오후 3시 대구스포츠타운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망벤처 기업은 4.8대 1, 고성장기업은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약 2개월 동안의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R&D 지원과 최대 6천만 원의 비R&D 지원을 포함해,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구 ABB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970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12.2% 증가하

고, 고용은 921명에서 952명으로 3.4% 증가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주요 기업 성과로는 ㈜다원메다스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일만백만의 30억 원 투자 유치, ㈜무지개연구소의 미국 내 드론 독점 유통계약, ㈜인트인의 100만 달러 수출 계약 등이 있다.

2024년에 새롭게 지정된 유망벤처기업으로는 인공지능 분야의 디엑스웍스㈜와 ㈜빅웨이브에이아이, 스마트시티 교통·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범호아이티㈜, 추중주행 로봇 기술의 ㈜아이로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의 ㈜체리, 생성형 AI 활용 디자인 제작 기술의 ㈜프롬프트타운이 있으며, 고성장기업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금도시스템, 인공지능 활용 머신비전 결합 자동 검사시스템의 ㈜러닝비전,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루트랩, 클라우드 SaaS 기반 지능형 통합 관제 플랫폼의 ㈜제이솔루션이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대구 미래 50년,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 활동 '호응'

가을맞이 팸투어 성황리 추진 290개 이상 관광 콘텐츠 제작 총 조회 수 130만회 이상 기록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포럼관광분부는 지난 11월 2일 대구글로벌관광서포터즈들이 참여한 가을맞이 팸투어를 성황리에 추진했다.

이번 팸투어는 '대구의 아름다운 가을 알리기'라는 주제로, 단풍 주요 명소 방문과 함께 주요 한류체험 관광지 등 대구의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투어에서 7명의 서포터즈들은 수성못에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즐기고,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복 및 다례, 대구의 트랜드한 카페를 체험했으며 내이치파크에 방문해 할로윈 테마의 자연 공원과 동물원 체험을 만끽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이토 시오리 씨(직장인, 울산거주)는 '수성못은 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 사실 여름의 수성못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가을의 수성못도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며 '내이치파크처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힘든 관광지를 팸투어로 갈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대구에 대한 애정이 한층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총 8개국 1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지난 7월부터 대구의 관광명소와 축제, 계절적 특별한 체험활동 등 매달 주제에 맞는 양질의 홍보 콘

텐츠를 제작 및 확산하며, 관광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오는 12월을 마지막으로 해단식을 앞둔 서포터즈는 현재까지 활동을 통해 화분, 사육원, 김강서 거리, 대구치맥페스티벌, 판타시아대구 축제, 막장 캠페인 등 총 290개 이상의 대구관광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총 조회 수 13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문예진흥원 강성길 관광본부장은 "대구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들의 홍보 콘텐츠를 통해 외국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구를 알아가고 대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달성문화재단, 청년 시각 '로컬 문화' 사업 진행

'로소로死 로컬에서 살아남기' 문화가치 창출자 7대 분야 모집



달성문화재단은 지역 문화를 이끌어 갈 청년 주체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지역 가치 문화 기획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로소로死 로컬에서 살아남기:달성편'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달성군의 문화·역사·자연·지역특산물·생활문화 등 지역 고유 특성을 청년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달성군만의 로컬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난 8월 지역 문화가치 창출자 7대 분야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등에 분야

별 참여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12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까지 특강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이들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고, 9월 24일 계획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역 문화 콘텐츠를 육성할 총 6명(5팀)의 우수 교육생이 선정됐다.

이들은 10월 한 달간 달성군 곳곳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여은 기자

지역기반제조 분야에 참여한 손승은(라라콘 시엘르) 씨는 달성군 이팝나무를 모티브로 한 친환경 주방 세제 '폼폼(POMPOM)'을 제조했다. 같은 분야 또 다른 참여자인 노우정 씨는 강정보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창한 로컬 브랜드 향수 '강정보의 물빛비림'을 제조했다. 두 참여자의 시제품 모두 '런러(Run Ran Run)' 행사에서 공개되었으며, 시제품들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완될 예정이다.

지역가치 분야에 도전한 박경민 씨는 현풍도 깨비시장의 유래를 담은 '도깨비시장 대소동' 음악 구연동화 책을 제작했다. 책은 달성의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흥미롭게 접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조여은 기자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군위군 고3 격려 방문

군위군수, 군위고등학교 찾아 수능 응원 참쌀떡 등 전달해

군위군은 5일 오전 군위고등학교를 찾아 마지막 수능 시험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격려 방문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군청 각 실과소장 및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봉우리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수능 대박 기원 참쌀떡 등을 전달하며 수험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합격을 기

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열 군위군수는 "큰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되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자신을 믿고 신중히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다가오는 군위군 대변혁의 시대에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학생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남시일 군위중고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2024 대구아트스퀘어' 7~10일까지 개최

500여명 작가들 3천여점 전시·판매 처음 진행 특별행사 '222 프로그램'

대구광역시와 대구아트스퀘어조직위가 주최하고, (사)대구화랑협회·(사)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하는 대구 지역 최대의 미술축제 '2024 대구아트스퀘어'가 7~10일까지 4일간, 엑스코(동관 4, 5층)에서 개최된다.

미술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예술도시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아트스퀘어'는 국내외 화랑들이 참가해 세계 미술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PLUS)와 40세 미만의 청년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청년미술프로젝트로 구성된 지역 최대의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축제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PLUS)는 100여 개의 국내 우수한 화랑이 참여하며,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다양

한 부스 구획 방식을 벗어나 1개 모양(타입)의 갤러리 부스에 각 갤러리의 대표작가를 3인 이하로 한정해 작가 집중형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국내외 500여명 작가들의 작품 3천여점이 전시·판매된다.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PLUS)는 잠재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특별 행사로 '222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22 프로그램'은 200만 원대 2점의 작품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아트페어 방문객들의 수집가(컬렉터)로의 첫걸음을 가능케 한다.

또한,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PLUS) 티켓 소지 시,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권 입장권 30% 할인 혜택 및 1일 4회 순환 운행(동대구역-엑스코-대구간송미술관&대구미술관-동대구역)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청년미술프로젝트에서는 13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유동성·이동성(모빌리티): 특별한 청년미술이



라는 주제로 대구미술 역사성을 토대로 과거와 다른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청년미술에 대한 시도를 다룬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설치·영상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어 현대미술의 최신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24 대구아트스퀘어 개막식은 1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화랑·미술관계자 및 청년작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코(동관 1층 5홀 입구)에서 열릴 예정이며, 입장료는 일반 1만 8천 원, 12세 미만 무료입장이다.

황태용 기자

계명대 학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계명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벤처스타트업 SW 인제개발 매칭 페스티벌에서 컴퓨터공학과 4학년 한동근(사진) 학생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벤처스

타트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생 등 청년 SW 개발 분야 구직자를 매칭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로, 중기부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기획했다. 수상자는 참가 학교의 교과 성적과 사업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으며, 한동근 학생이 최우수 학생으



로 뽑혔다. 한동근 학생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 방문, 해커톤 대회 참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큰 상을 받아 기쁘고, 후배들도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ac.kr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경영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M뱅크 경산영업부, 아동센터 식품 기부

iM뱅크 경산영업부는 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기탁했다.

크 임직원, 아동청소년과 직원, 지역아동센터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300여 박스의 음료와 과자를 하차하고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들 간식은 관내 2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루 전달되었다.

iM뱅크 경산영업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복비 및 장학금 지원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APEC 경주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연다”

8일 경주시민 운동장서 무료 공연 인기 가수들 공연 1, 2부 나눠 진행 향후 KBS STORY 통해 녹화 방영

경상북도·경주시와 경북문화재단은 8일 경주시민 운동장에서 10000여 명의 관객과 함께 ‘APEC 2025 KOREA 경주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APEC 2025 KOREA 경주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제영상과 퍼포먼스, 드론쇼, 도민 인터뷰 영상과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APEC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관객들이 현장을 가득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1부에서는 APEC 주제영상 상영과 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와 APEC 성공메시지를 형상화하는 드론쇼, 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수상경력의 쇼파이어 합창단 하모나이즈와 뮤지컬 가수 홍

지민의 축하공연에 이어 APEC 성공개최 응원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2부에서는 지역 출신 가수와 인기 가수의 콘서트가 이어지는데 경주 출신의 한혜진과 함께 트롯 경연대회 출신인 포항의 자랑 전유진, 보이스퀸 경연대회 우승자 정수연(영주), 인기가수 황윤성, 마지막으로 이찬원이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주남영 경주시장은 “역사도시 경주에서 APEC 2025 KOREA 경주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20년만에 열리는 국가행사인 만큼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직접 공연장을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해 KBS STORY를 통해 추후 녹화 방영할 예정이다.

콘서트 입장은 선착순으로 무료이며, 콘서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재단(054-650-29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용 기자



행정통합 주요 설명... 시·군 부단체장 회의

권역별 주민설명회 7일 포항 시작 “적극 홍보로 공감대 형성 노력”

경북도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등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주요 내용 설명과 권역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및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도정과 시군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시군 부단체장들은 ▲영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경산 상립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청송 송생-하의간 도로 건설 ▲봉화 주실령 터널 설치 공사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불편 사항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군의 재정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빈틈없이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통합으로 변화되는 대구·경북의 미래상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7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 등 4개 권역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통합 추진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경산시장장애인체육회 출범식

경북 경산시장장애인체육회가 5일 경산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경산시민운동장에 사무국을 두고 종목별 경기 단체 육성, 장애인 엘리트 선수 발굴,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출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시장장애인체육회 임원은 25명이다. 조여은 기자

베트남 국영방송사 통해 경북관광 홍보 진행

문경·구미·경주 등 관광지 다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 강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5일 경북도청에서 베트남 국영방송 VTC1방송사를 통해 경북관광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VTC1(Vietnam Multimedia Coporation) 방송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본부를 두고 정부가 운영하며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방송이다.

VTC1 방송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문경의 드라마촬영지, 구미 라면축제, 경주 세계유산 및 황리단길, 안동 하회마을 등을 둘러

보며 경북의 다채로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주요 방한국가인 베트남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켰으며 현재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경주가 지난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음을 강조하며, 가장 한국적인 지역이자 회의장과 숙박시설, 공항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21개국 정상에 비롯한 많은 외국인에게 경북을 방문할 것을 대비해 ‘2025 경북방

문의 해’ 등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경북을 주목할 것이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경주 외에도 영국 여왕이 선택한 ‘안동’, 한류드라마 촬영지 및 ‘문경’ 등을 방문하면 진정한 한국화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경북을 찾은 글로벌인플루언서 10명을 문경, 구미, 경주, 안동지역에 초청하여 이들이 경험한 경북관광의 멋과 맛, 흥을 SNS에 업로드하며 경상북도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송명주 기자

경북교육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본격화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 계약 체결 2026년 5월 완공 목표로 건립 진행

경북교육청이 5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가칭 경북교육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테스트포스(TF) 협의회를 열고, 박물관 개관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해 전시 체험물 제작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업체와 제작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전시 체험물을 교육홍보관과 상설전시관, 전시체험관 등 3곳에 전시할 계획이다.

이 날 내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TF는 양질의 전시 체험물을 갖추고 경북교육에 특화된 우수한 박물관으로 개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 체험물 사전 기획 용역 결과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점검하고 전시물이 교육적 효과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될 수 있도록 계약업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박물관 설계부터 전시물 제작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이가 교육적 가치와 흥미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Advertisement for a newspaper with a thumbs-up icon and text: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We will create the best newspaper with the best stories). Includes contact info for 대구광역시 (Daegu City) and phone number 053-253-0000.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대게의 계절... "대표 브랜드 명성 잇도록 최선"



한수원 경주 선도동 나눔행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처는 4일 선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선도이웃사랑지대)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1대1 가족맞이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수원 발전처는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탁하고, 선도이웃사랑지대가 결연한 30세대에 이를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한수원 발전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더브랜즈'를 통해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선도이웃사랑지대의 지원 대상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송 청소년, 뮤지컬공연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일, 제18회 청송사과축제를 맞아 '인어공주와 흥부와 놀부' 두 편의 뮤지컬 공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구성된 '토리반이' '인어공주'를,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가람반이' '흥부와 놀부'를 무대에 올리며 열정적으로 연기를 펼쳤으며, 비가 내린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송사과축제장 주무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공연을 관람하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중 뮤지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작품을 선택하고, 춤과 노래, 연기를 포함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며,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을 뽐냈다.

5개월 금어기 기간 후 첫 위판 총 11회 걸쳐 대표 브랜드 대상 개체수 보호 위해 지도·단속 진행 영덕군수, 중매인들과 의견 교류

대게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유의 단백한 맛과 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물 중 하나인 영덕대게가 5개월 간의 금어기를 보내고 지난 3일 강구항에서 올해 처음으로 위판됐다.

영덕대게는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은 최고의 특산물로 이름을 올렸다. 단백질 함량이 많아 쫄깃한 맛이 특징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하되 지방함량은 적어 건강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돼 12월 연안으로 확장돼 본격적으로 이뤄져 다음 해 5월까지 이어진다. 살아 꼭 찬 대게는 '박달대게'라 부르는데 박달대게만이 집게다리엔 '영덕대게 브랜드 타이'를 두르게 된다.

이날 경매에는 근해대게자망어선 3척이 참가했으며, 낙찰가는 마리 당 기준 최고가 15만 4,000원, 총판매액은 1억 9,885만 원을 기록했다.



경매 현장을 찾은 김광열 영덕군수는 김성식 강구수협장과 함께 어업인, 강구대게거리 상인, 중매인들을 격려하고 영덕대게를 포함한 수산업 발전에 여러 의견을 나눴다. 강구수협 김성식 조합장은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동해안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영덕대게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올겨울 대게가 더욱 많이 잡혀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인 영덕대게의 개체수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엄중히 진행하고 품질에 걸맞은 브랜드 관리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포항시장, 내년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대응

국회 예산 정국 본격화 전 준비 지역 핵심사업 증액 현안 설명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의 일정이 끝난 3일 귀국과 동시에 이튿날 발빠른 행보로 내년도 국비 증액 예산 쟁기에 돌입했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예정된 간사인 구자근 의원을 만나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취 의원(과방우)과 김정재 의원(국도위)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증액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기간 증가로 재선충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해수위 소속 임피에 의원과 이만희 의원을 만나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2억 원) △포토사 소나무재선충병 수목제거 및 조림(48억 원)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20건 686억 원으로, R&D 사업으로는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50억 원) △4세대 방가광속기 발달인 증설(67억 원) △혁신적 표적 약물 전달 원천기술 개발(10억 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



으로 △이차전지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조성(20억 원) △하이니켈 양극재용 에너지저장형 친환경 경제조공정 테스트베드 구축(21억 원) △이차전지 재생원료 비축센터 구축(200억 원) 사업도 증액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국내 최대 한옥 특화 전시회

국내 최대 한옥 특화 전시회인 '2024 한옥문화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고, HICO가 주관하는 이번 한옥문화박람회는 "당신 곁의 한옥"을 주제로 한옥의 가치, 한옥 문화의 대중화 및 브랜드화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행사는 40여 개 참가업체와 140개 전시부스,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펼쳐진다. 전시회는 △한옥건축 △한옥자재 △인테리어 △한옥문화 △한옥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계·시공·인테리어 등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뿐만 아니라, 한옥에 대한 의견을 넓힐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도 마련돼 있다.

9일 14시부터 개최되는 한옥 트렌드 컨퍼런스는 △임영남 가온건축 대표 △한옥스테이 브랜드 '버들리' 운영사 이동우 프라우들리 대표 △한옥 리모델링 카페 '화수현' 운영사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가 연사로 참석해 한옥 활용 사례, 한옥 리모델링 등을 소개한다.

10일 14시부터 개최되는 한옥 시공 컨퍼런스는 △소영순 (재)화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정훈 다빈한옥 대표 △유종 유민구 대표가 초대대 한옥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울진군, 단수 물 공급 중단 사전대비

병입수돗물 보배수 생산 1.8L 기준 총 7200명 준비

울진군은 1~18일까지 근남면 맑은물사업소 보배수 생산동에서 겨울철 이상기후로 폭설 및 동

파시 단수로 인한 물 공급 중단 사전대비 병입수돗물인 보배수를 생산한다.

울진군은 보배수 1.8L 기준 총 7,200병을 생산하여 맑은물사업소 보배수 생산동 3,300병, 금강송면사무소 300병, 금강송면 12개리 마을회관에 3,600병을 비축할 계획이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금강송면은 현재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원 감소, 겨울철 한파 및 폭설로 물 공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단수가 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 보배수 지원, 비상 급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병목 울진군수는 "재난대비 선제적인 보배수 생산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보다 빠르게 현장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결혼, 출산, 돌봄까지 모든 것을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100대 실행 과제. 1. 예산 34, 2. 안전 35, 3. 주선 36, 4. 1인 37, 5. 4인 38, 6. 5인 39, 7. 6인 40, 8. 7인 41, 9. 8인 42, 10. 9인 43, 11. 10인 44, 12. 11인 45, 13. 12인 46, 14. 13인 47, 15. 14인 48, 16. 15인 49, 17. 16인 50, 18. 17인 51, 19. 18인 52, 20. 19인 53, 21. 20인 54, 22. 21인 55, 23. 22인 56, 24. 23인 57, 25. 24인 58, 26. 25인 59, 27. 26인 60, 28. 27인 61, 29. 28인 62, 30. 29인 63, 31. 30인 64, 32. 31인 65, 33. 32인 66, 34. 33인 67, 35. 34인 68, 36. 35인 69, 37. 36인 70, 38. 37인 71, 39. 38인 72, 40. 39인 73, 41. 40인 74, 42. 41인 75, 43. 42인 76, 44. 43인 77, 45. 44인 78, 46. 45인 79, 47. 46인 80, 48. 47인 81, 49. 48인 82, 50. 49인 83, 51. 50인 84, 52. 51인 85, 53. 52인 86, 54. 53인 87, 55. 54인 88, 56. 55인 89, 57. 56인 90, 58. 57인 91, 59. 58인 92, 60. 59인 93, 61. 60인 94, 62. 61인 95, 63. 62인 96, 64. 63인 97, 65. 64인 98, 66. 65인 99, 67. 66인 100, 68. 67인 100, 69. 68인 100, 70. 69인 100, 71. 70인 100, 72. 71인 100, 73. 72인 100, 74. 73인 100, 75. 74인 100, 76. 75인 100, 77. 76인 100, 78. 77인 100, 79. 78인 100, 80. 79인 100, 81. 80인 100, 82. 81인 100, 83. 82인 100, 84. 83인 100, 85. 84인 100, 86. 85인 100, 87. 86인 100, 88. 87인 100, 89. 88인 100, 90. 89인 100, 91. 90인 100, 92. 91인 100, 93. 92인 100, 94. 93인 100, 95. 94인 100, 96. 95인 100, 97. 96인 100, 98. 97인 100, 99. 98인 100, 100. 99인 100.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성암신협, 이불 기탁

경산 성암신협은 1일 남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1백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 20채를 기탁했다.

성암신협은 신협사회공헌재단 기금을 활용해 각 지역 신협 단체들이 모은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겨울 이불을 후원해 오고 있다.

석중일 이사장은 "추운 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다"며 "이번 후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다도회, 장학금 기탁

지난 2일 영천다도회에서 100만 원, 4일에는 아이코리아 영천지회에서 50만 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영천다도회는 지난 2일 영천문화원에서 개최한 '제8회 영천시민을 위한 별빛 찾자리' 행사에서 지역인재를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영천의 3선현(정몽주선생, 최무선 장군, 박인로 선생)에 대한 한다면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차와 간식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전통 다도 예절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해 풍성하게 진행됐다. 영천다도회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함께 2011년부터 장학금 기탁을 해, 총 기탁금이 약 970만 원에 이른다. 신철자 회장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3선현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산시 '반려문화축제' 개최

대구대 서문 잔디광장서 행사
이웅중 교수 반려견 산책 특강
가수 편치와 김경현 축하 공연



경산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대학교 서문 잔디광장에서 '2024 경산반려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며 성숙한 반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첫날에는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중 교수의 반려견 산책 특강과 '신시아TV' 유튜버의 반려 식물 특강, 인기 가수 편치와 김경현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둘째 날에는 고양이 행동 전문가 김명철 수의사의 고양이 강연과 '독일카씨' 유튜버의 식물 특강,

김승이 훈련사의 반려견 행동 교정 특강, 아웃사 이더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어질리티존, 토끼와 도둑개 먹이 주기, 승마 체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물찾기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반려동물 미용과 위생관리, 수의사와 함께하는 건강 상담, 반려 동·식물 관련 제품 전시 및 판매, 포토존, 푸드트럭, 워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개로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이 군견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전해지는 삼살개를 만날 수 있는 '삼사리 놀이동산'이 운영되어 천연기념물인 삼살개와의 교감과 분양 절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 식물에 대한 전문가 특강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된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성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성주군은 11월 4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예방교육과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요양보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예방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르신 돌봄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성을 쏟는 종사자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직무능력을 키워주면서 종사자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제도는 노후생활안정과 가족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성주군에서는 42개소에서 900여명의 종사자들이 1,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재훈 기자

'점오골목축제' 특별행사... '칠곡할매래퍼' 공연

그룹 평균 연령 각각 85·82세
독자적 안무 통해 관객들 호응
군수 "많은 국민에 희망과 용기"



경북 칠곡군에서 할머니 래퍼들의 그룹 배틀이 펼쳐졌다. 평균 연령 80세를 훌쩍 넘긴 래퍼들의 세상 힙한 그루브에 무대가 뒤집어졌다.

지난 2일 칠곡군 왜관읍에서 열린 '점오골목축제'의 특별행사로 마련된 '쇼미 더 할머니' 랩 배틀 대회서 '수니와칠공주'와 '덧발 왕언니'의 세기의 대결이 선보였다.

외신에서도 K-할매로 주목한 수니와칠공주에게 지난 3월 장단한 신생 할매래퍼 그룹 덧발 왕언니가 도전장을 내민 것.

수니와칠공주와 덧발 왕언니 모두 여든이 넘어 랩에 도전한 할머니들로 90세로 최고령인 추유을 할머니를 포함해 그룹의 평균 연령은 각각 85세와 82세다.

이날 경연에서 두 그룹은 리더들이 즉석에서 만든 랩을 선보이며 공연을 펼쳤고 이후 프리스타일 그룹 랩 배틀까지 벌이며 흥을 이어갔다.

가을을 주제로 한 리더들의 즉흥 랩 대결은 후배의 과감한 도발로 시작됐다. 덧발 왕언니 리더 성주자 할머니는 "기름 짜듯이 짹 짜버려 버릴 테야"라며 수니와칠공주 리더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질세라 수니와 칠공주 리더 박점순 할머

니는 "가을 아침 산에 올라가니 도토리도 줍고요, 알밤도 줍고요. 달래도 따고요."라며 맞불을 놓았다.

개인전에 이어 펼쳐진 단체전에서 두 그룹의 할머니들은 아래위 퍼포밍한 옷차림으로 흥을 내뿜으며 무대를 휘저었고 독자적인 안무를 통해 관

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날 무대에서 수니와칠공주를 응원하는 '슬리피와덧발 왕언니'를 지지하는 '제이롱' 등 국내 정상 래퍼들의 신경전도 불을 뿜었다.

두 그룹을 지도하는 강사들끼리의 자존심 싸움도 팽팽하게 펼쳐졌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무대에 서기 전 각방을 쓰며 안무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공연에 사용될 각종 소품을 철저히 숨기는 등 보안 속에 맹연습을 이어갔다.

이처럼 경연 순간순간마다 양측 모두 불꽃 튀기는 랩과 나이를 잊은 댄스 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졌지만, 수니와칠공주의 압승으로 결판이 났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쇼미 더 할머니'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승 모자를 수니와칠공주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김 군수는 "무승부를 선언하고 싶었지만, 대회이니만큼 심사 결과를 모아 승부를 가렸다"라며 "두 어르신 래퍼 그룹의 대결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모집

입주 경험 없는 창작활동 작가
큐레이터와 멘토링 과정 제공

영천시는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칠 젊고 유능한 17기 작가를 모집한다.

4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 일 기준 만 20세 이상으로 본 스튜디오에 입주경

험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 작가로 모집 분야는 평면, 입체, 사진, 설치 영상 등이다.

입주작가 지원 내용으로는 창작 공간 제공 및 세미나, 워크숍, 평론가 및 큐레이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대구아트페어 참가 등이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작가들을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레지던시'라는 맞춤형 영천이라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다른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해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11월 문화행사 공연 다채

창작음악극 '꿈의 메아리'
문화단체종합발표회 등

고령군이 깊어가는 가을 속 군민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했다.

군은 11월 9일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창작음악극 꿈의 메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5일 군립가야금연주단 정기공연 동행, 11월

16일에는 가야금 음악제, 11월 22일에는 문화단체 종합발표회를 연이어 대가야문화누리 우륵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꿈의 메아리 공연은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잊혀진 꿈을 다시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음악극이다. 청년예술인들이 만든 창작곡과 '아빠의 정춘', '사랑은 늘 도망가' 등 인기곡을 활용하여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의 용기를 전한다. 배영백 기자

좋은 고령! 건강한 고령!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동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향군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상주 상록회 연탄 기부

상주시 상록회는 3일 사별국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별국면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 및 전달봉사를 실시했다.

상록회는 1985년부터 성심인내 봉사-협동이라는 이념 아래 지역 사회 봉사활동의 중심에서 상주를 이끌어온 자생 봉사단체로 상록회 김민목 회장(한국자동차정비공장 대표) 외 5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장학사업과 시민문화행사, 연탄봉사, 김장나눔봉사 활동을 실천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상록회 회원과 가족들은 산 중턱에 위치하여 연탄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 10가구에 500장씩 총 연탄 5천 장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 맛·깎·찢 음식점 추가

김천시는 4일 울곡동 소재 '덕산90짜글이'에서 2024년 하반기 맛·깎·찢 우수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업소 지정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맛·깎·찢' 우수음식점 지정은 김천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1차 사전평가와 2차 우수음식점 발굴·육성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통해 맛, 위생,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2년이 경과된 업소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 볼 수 있는 한우특별시, 지례흑돼지 짜글이 짜개로 유명한 34년 전통의 덕산90짜글이가 신규 업소로 지정됐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매주 토요일 주말 확대 운영 장난감 최대 4개월 동안 대여 '맘앤베이비 사랑꾸러미' 제공 영유아 가정 방문서비스 지원

의성군은 소중한 내 아이를 내가 사는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안기면 소재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이비카페의 주말 운영 확대로 맞벌이가정 등 평일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10:00~14:00) 주말 운영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육아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내 베이비카페는 지역 내 영유아를 위한 아기놀이방과 장난감대여소 및 부모심터 운영으로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육아 환경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해 주고 있다.

장난감대여소에서는 무료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대여할 수 있으며, 장난감은 한 자녀당 2점,



최대 14일, 육아용품은 한 자녀당 2점, 최대 4개월 동안 대여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출산가정에 행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맘앤베이비 사랑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 구성으로는 건강한 아기 양육을 위한 체온계, 베이비

로션·크림, 신생아 내의·속싸개, 드라이플라워 축하 액자 등이 포함된다. 출산가정 수요에 맞는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출산가정에 출산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다.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은 영유아 대상 요람놀이, 발레, 미술, 체육 프로그램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교실 예비부부·임산부·영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 행복 감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강사 및 육아전문 교육기관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특히 9월 24일부터 센터 이용객 만족도 조사 의견수렴을 통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야간특강 요리교실을 운영 중이다.

육아지도 방문서비스로 자녀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유형으로는 산후 건강관리, 모유 및 분유 수유법, 아기 목욕법, 아기 마사지법, 아기 영양관리, 예방접종 지원이 있다. 육아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들의 실질적 육아고충 해소를 돕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복한 육아 환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구미, 행안부 주관 규제개선 선정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완화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굴하고 있다. 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다. 이는 야

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40km/h에서 50km/h로 완화한 사례로, 어린이 주요 통행시간 이외의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교통안전시설심의회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 이 사례는 도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규 사례로는 축산 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허가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기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 관련 시설에만 공작물(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시는 구미시의회와 지역 주민, 축산 농가 간의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7월 개정된 조례를 공포·시행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발판을 마련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월스트림 민원팀'과 '소액 이행보증금 환약서 제출 절차 간소화'가 채택되며, 구미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송명주 기자

문경, 인구정책사업 담당팀장 실적 점검회의

10월말 기준 지역 인구 감소 추세 9개 기금 사업 점검과 분석 가져

문경시는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인구정책사업 담당팀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경시 인구는 10월말 기준 6739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 2031년까지 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사업 성과 및 기금투자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2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9개 기금 사업을 점검하여 추진 과정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공유, 기금 우수등급을 받기 위한 방안강구,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구감소를 막거나 인구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더욱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문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전력인프라 활용 사회안전분야 협력식

한전 경북본부 · 의성경찰서 · 한전MCS 실종예방 방지 장치 등 사업 추진



의성군은 지난 2일박해수 국회의원, 의성군, 한전 경북본부, 의성경찰서, 한전MCS 의성지점 관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안전분야 협력사업을 합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식을 가졌다.

이번 협력은 한국전력의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win-win형 패키지 지원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제공,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AI 기반 산불 조기 대응시스템 구축, △농촌지역 절도범죄 예방 이동형 CCTV 설치 등 4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안전분야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Yes 문경' (Yes Mungyeong) featuring a map of the city on an open book. Text includes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Mungyeong contains all travels), '932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네습지' (932 types of plants and animals' home, Environment Ministry designated wetland protection area Dollyne Wetland),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Walking through history, culture, and scenery, the flower of Mungyeong travel is Mungyeong Saegae National Park), and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The first domestic cultural ecology video complex theme park Mungyeong Eco World). The MG Mungyeong logo is at the bottom right.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예천 청년상인 점포 개점

예천군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고령화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도과 일 전소희 대표는 지난 8월 상설시장 105호에 청년상인 점포를 개점하고 컵과일, 과일도시락, 과일청 등을 판매하면서 단체 주문 등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봉화 청량산박물관 체험 인기

봉화 청량산박물관이 지난 3월부터 지역 아동과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청량산 문화유적 탐사, 학예사 체험, 박물관 학습지 체험 등 전시와 연계된 분야와 각종 만들기 체험(부채, 예코백 등), 탁본 체험, 물로쓰는 서예 체험 등 일반 소양 분야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봉화, 우주, 제일어린이집 및 소천초등학교 등 관내 유아 기관과 학교에서 단체 체험학습을 다녀갔으며, 주말에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방문한 개인 및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만들기 및 학습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영주시청소년 상담 활동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일, 회의실에서 상담지원봉사단 31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놀이치료, 마음챙김카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아동마음챙김연구소 정하나 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인지행동 놀이치료, 마음챙김카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법을 습득하여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함께 실습으로 구성되어 상담지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음챙김카드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과의 상담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양군 '팔도주무관' 지역민들과 '소통'

다영 · 김동현, 로컬 이슈 대응
3종 민원 서비스 현장 경험
안전바 등 필수 민원 해결 등

영양군은 3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이 된 김동현과 우수소녀 다영이 함께한 영양군 공무원 생활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방송들 속에서 영양군청 홍보팀 주무관으로 발령난 우수소녀 다영과 청기면사무소 산업팀 주무관이 된 김동현이 다양한 민원에 응대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로컬 이슈에 대한 현실적

인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홍보팀 주무관이 된 다영은 영양군의 자랑인 찾아가는 3종 민원 서비스 현장을 찾아나가 직접 경험해보며, 좋은 홍보 방향을 찾아나갔고 내용들은 가성비 있는 가격과 '배달 서비스로 인기가 많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였다.

또 '찾아가는 워터파크'에서는 직접 아이들과 놀아주며 영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영양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후 '찾아가는 한방버스(오지마을 건강사랑방)에서는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

을 위한 치료를 통해 교통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 한 분 한 분 케어하는 손길이 군전역에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며, 지자체 행정의 이점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다.

면사무소로 발령받은 김동현 주무관은 첫날부터 영양의 자랑인 고추를 밭에서 직접 따고 포대를 나르며, 부족한 농촌의 일손 돕기로 큰 보탬이 됐다. 그리고 민원 현장에 출동하여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해결해 나갔고 특히 현장 민원의 대표 명사인 '바로민원 처리반'과 함께 집시설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 전구와 미끄러진 방지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필

수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섰다.

'팔도주무관'은 예측불허 업무 현장과 업무 해결 과정들이 펼쳐지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공무원'의 세계 속에 지자체 공무원의 애환과 더불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으며 진정성과 재미를 만들어 냈고 영양의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담아내 호평을 자아냈다.

영양군수 오도창은 "작은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애환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었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기업유치 보고회

총 8개월 걸쳐 용역 진행
실질적 기업 유치 성과 노력

영주시는 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단지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 이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의회 의원, 용역사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이행상황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

인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단지의 성과를 결정할 성공적인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현황 분석 △기업유치 전략 수립 △유치대상 타깃기업(100개) 발굴 △심층기업(30개) 선정 △투자유치해가서 체결을 위한 유치활동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수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단지에 양질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재훈 부시장은 "양질의 기업 유치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첨단베어링 국가산단단지 성공적 기업유치에 영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활력있는 지역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올해에만 100여 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맞춤형 기업지원 제도 발굴,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2024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 개최

연행예술 지원제도 필요성과
동향 대해 논의하고 의견 교류

2024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안동총회가 1일과 2일 한국문화테마파크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동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무형유산의 인문 가치 재고와 탈 문화'라는 주제로 15개국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 18개 탈춤보존회 전승자 및 무형문화전문가, 유네스코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안동총회에서는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탈 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그리고 연행예술의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무형유산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개회사에서 "안동시는 2012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탈춤 등재를 위해 고민했으며, 2022년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는 기쁨을 누렸다'며 '이번 안동총회는 인류사회에 보편적 인문가치를 제시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함께 개최되고 있어 인문의 가치와 탈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세계탈문화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탈 전문가 및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탈 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한국의 탈춤에 대한 인문 가치 재고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연행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제도와 필요성', '무형유산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효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4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돼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폐회식에서는 차기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세계총회 개최지로 중국 웨이팡시가 선정돼 중국 웨이팡시 무형문화유산협회 부시장이 등 웨이팡시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차기 총회에 대한 의향서를 상호 교환했다.

향후 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 웨이팡시는 차기 총회 개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웨이팡시를 비롯한 중국의 탈 문화 등 무형유산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특히 안동시와 웨이팡시와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 유일의 탈 관련 유네스코 인가 NGO 단체인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은 국가 간 탈 문화의 교류와 연구를 위해 2년마다 우수한 탈 문화를 보유한 국가와 공동으로 세계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안동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탈 문화 선도도시인 안동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송영주 기자

영양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버스킹 개최

청소년 주도행사로 홍보까지
영양군 청소년 총 7팀 참가해

영양군청소년수련관은 2일 오후 2시부터 어울림터마당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버스킹 INSTAR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로 펼쳐지는 청소년 버스킹 INSTAR는 영양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Starlike의 주제로 이루어진 청소년 주도행사로 기획부터 홍보, 운영까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영양군 청소년 총 7팀(32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열정을 무대 위에서 펼쳤고, 그 밖에 보석 십자수 그림책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타로,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스 운영도 하여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학교, 지역, 문화, 예술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찾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주적십자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교육

유관기관 보건·방문·복지 실무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소개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동의료원과 공동 주최한 교육으로 영주권(영주, 예천, 봉화), 안동권(안동, 의성, 청송, 영양)의 유관기관 보건·방문·복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무자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

로 참여해 추진됐다.

이행행사는 영양군 청소년 총 7팀(32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열정을 무대 위에서 펼쳤고, 그 밖에 보석 십자수 그림책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타로,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스 운영도 하여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학교, 지역, 문화, 예술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재능을 찾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소개, △노인 만성질환 관리(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인견주 교수), △치매 질환의 이해(영주적십자병원 신경과 김철호 과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실무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장석 영주적십자병원장은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성기 기자

APEC 2025 KOREA  경주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2024. 11. 8.

금요일 오후 6시

경주시민운동장

관람 PLUS+

경주 하늘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드론쇼

